하나님의 통제, 개입, 주관하심

(시편 132:1~18)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2.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제, 개입, 주관하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개입, 주관하심'
하나님의 통제하심은 개입하심으로 발전하고 개입하심은 주관하심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줄리엣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름이란 게 무슨 소용인가?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똑같이 향기로울 게 아닌가?" 라고 하였습니다. 장미를 설령 자전거라고 부를지라도 그 자체에서 나는 향기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작품 내에서 줄리엣은 캐플릿 가문의 딸이고 로미오는 몬테규 가문의 아들입니다. 이들 가문은 철천지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앞서 본 대사는 줄리엣이 이를 안타까워하며 한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지간인 몬테규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이 장미인들 어떻고 자전거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로미오가 몬태규의 가문에 속했다는 것이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한 존재는 이름이 없이도 존재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연관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야만 했고, 또한 우리는 성전 의미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단속하시는 단계를 넘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게 됩니

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이 정착될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주관하심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단속하심은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바뀌고 이어서 주관하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단속하신다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격과 삶 바깥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단속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발생하는 악의 힘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는 죄악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의 상태에서 발생한 소원이나 비전들은 악의 힘입니다. 또한 이것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이 악의 힘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단속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더는 필요 없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배제시키려 팔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요셉이 없는 편이 낫다고 여겼기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관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단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악의 힘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127편의 1~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꾼들이 큰 고기가 잡히면 바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겼다 풀었다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낚싯줄에 걸린 고기입니다. 좀 풀어주시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바짝 당기시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풀린 것 같아도 통제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밖에서 생겨난 악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단속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삶의 주체로서의 입장을 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

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밀어붙이시며 역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입니다.
개입과 간섭이란 말은 곧 타인이 나의 일에 대해 강제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아내 사래를 탐내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멸망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깜짝 놀라서 사래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읽은 부분이 모르드개가 반역을 막아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치밀하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연쇄성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갑이 되신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주관하심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격 안에 머무시며 뜻을 펼쳐 가시는 단계를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 13~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들어와 쉬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심이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에서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와 계십니다. 이 관계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금 살펴본 13~18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는 솔로몬이 성전 준공식을 앞두고 부른 노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앞서보았던 1~5절까지를 살펴보면 법궤를 사랑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전까지는 침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이 법궤를 향한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란 곧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며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가리킵니다. 즉 법궤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법궤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사랑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였지만,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기랏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무른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법궤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보내며 성막에 모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침내 이루어진 성전 준공식에서 다윗의 이 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즉 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시온 성 즉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는 실제로 하나님을 모신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위해 지어진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어와 머무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한 곳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시고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의 단계를 넘어서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먹고 입고 사는 것의 생활 전체를 주관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됩니다. 법궤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를 그토록 성전에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이 상징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편안히 쉬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이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나타납니다.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에 상사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전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법궤를 그토록 성전에 모시고자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완성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억되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소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은 바람이고 추구함인 기도를 상징합니다. 추구를 하는 이유는 떡상이 뜻하는 대로 마음의 기쁨과 배부름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방식입니다. 즉 하나님께 지음 받은 인간의 모습이기에 만족함을 추구하려는 성향 자체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구분하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구조입니다.

그리고 휘장 안쪽으로 지성소가 존재하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합니다.

인간의 죄악 상태는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담은 상태를 뜻합니다. 재물 건강 형통 성공 등의 이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을 담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 발생한 악을 통제하시고 단속하십니다. 때문에 75억 모든 사람이 돈 벌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통제와 단속을 넘어서 주관하십니다.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을 들여놓았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이면 이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가짐으로서 기쁨과 만족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깨끗해진 마음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임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 건강 성공 등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담으면 결코 하나님은 임하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 아닌 개입하심과 단속하심이 반복될 뿐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곧 십자가를 통해 부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뭄에 콩 나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의 사건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24시간 편안하게 머무시며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여자 집사님 두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에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홀 담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홀 벽에 달력을 하나 마련해서 줄을 긋는다고 하십니다. 성질 까다로운 주방장과 만났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줄을 한 번 긋습니다. 오너와 대화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했다면 줄을 한 번 긋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하루에 열 번씩 죽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변화를 간증하셨습니다. 우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내 입장을 추스르기에 급급했는데 직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전이는 보이지 않았던 이웃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이렇게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열 번뿐만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와 만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직장에서 하나님 이름 하나를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생활화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삶을 통째로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오늘 십자가에서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번 죽자고 결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편안히 임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단속하시고 개입하시는 삶을 지나 온전히 주관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